

평양명승 사진그림엽서 "현무문"에 얽힌 전쟁영웅담 -청일전쟁 평양전투 영웅 하라다 주키치의 표상과 기억-

The tale of an war hero related to the postcard of Hyunmumun with a view of Pyongyangs scenic spot

저자 (Authors)	최인택 Choi, In-Tag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71 , 2019.7, 421-449(29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71 , 2019.7, 421-449(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52892
APA Style	최인택 (2019). 평양명승 사진그림엽서 "현무문"에 얽힌 전쟁영웅담 -청일전쟁 평양전투 영웅 하라다 주키치의 표상과 기억-. 일본문화연구, 71, 421-449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5: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평양명승 사진그림엽서 '현무문'에 얽힌 전쟁영웅담*

-청일전쟁 평양전투 영웅 하라다 주키치의 표상과 기억-

최 인택

<국문초록>

하라다 주키치는 평양명승사진그림엽서에 청일전쟁영웅으로 그 이름이 명시되어 시, 공간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환기된 특이한 존재였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머슴살이를 하다가 청일전쟁 때 일개 병사로써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 받는 전쟁영웅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당시의 미디어는 그의 공적을 미화하여 대대적으로 현창함으로써 또 다른 영웅의 탄생을 부추기는 멸사봉공, 충군애국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생활고 끝에 유랑예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몰락한 영웅'으로 표상되었다. 한동안 대중들로부터 잊어지고 있던 그는 1930년대 만주사변 등 나라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다시 미디어에 등장하여 전쟁미담의 주인공으로 재소환 된다. 즉 필요에 따라 그를 국가주의 애국담론에 소환, 환기시켜 전쟁이미지를 국민들이 공유하는 군국주의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키워드 : 청일전쟁. 현무문전투. 전쟁영웅. 하라다 주키치, 충군애국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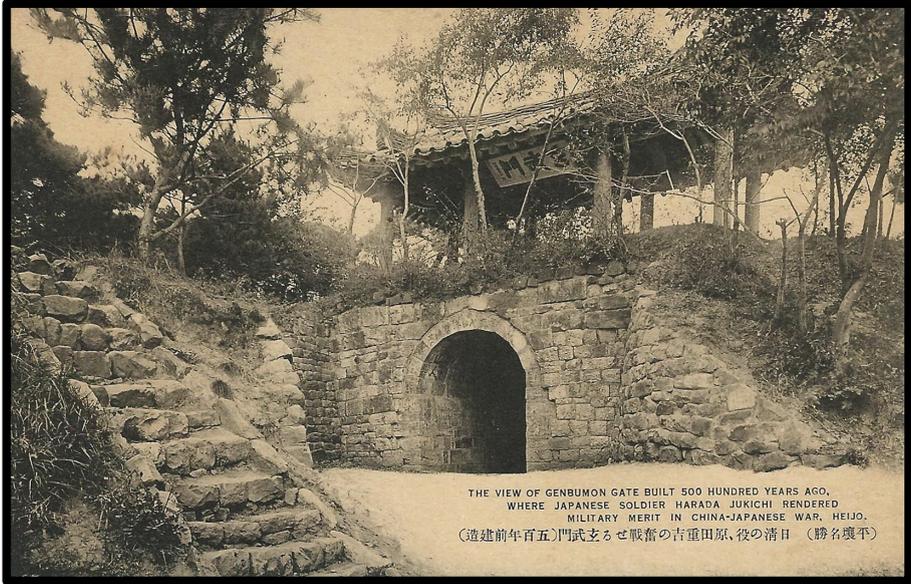
서론

제1장 전쟁영웅 하라다의 탄생

제2장 전쟁영웅 하라다의 표상과 기억

결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3).



THE VIEW OF GENBUMON GATE BUILT 500 HUNDRED YEARS AGO,
WHERE JAPANESE SOLDIER HARADA JUKICHI RENDERED
MILITARY MERIT IN CHINA-JAPANESE WAR, HEIJO.
(建造前年百五)門武ぞるせ戦誓の吉重田原、役の清日 (勝名獲平)

[엽서1] THE VIEW OF GENBUMON GATE BUILT 500 HUNDRED YEARS AGO, WHERE JAPANESE SOLDIER HARADA JUKICHI RENDERED MILITARY MERIT IN CHINA-JAPANESE WAR, HEIJO. (平壤名勝) 日清の役、原田重吉の奮戦せる玄武門(五百年前建造)

서론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표상하는 수많은 사진그림엽서가 존재한다. 크게는 총독부 등에서 발행하는 관제엽서와 히노데상행(日の出商行), 대정사진공예사(大正写真工芸社) 등이 발행한 사제엽서로 나뉘는데 장르 또한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제국의 시선에 포획된 타자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広報'와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기능을 충실히 재현하고 홍보하는 효율적인 媒体로서의 역할 또한 사진그림엽서에 주어진 다중기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학진흥사업 [일제침략기 한국관련 사진그림엽서의 수집, 분석, 해제 및 DB구축사업] 연구팀이 최근 수행한 다음 논문들을 참조 바란다. 신동규(2018:5-34), 조정민(2018:35-58), 최인택(2018:59-88), 한현석(2018: 89-114), 황익구(2017:49-74), 황진(2017:77-100).

특히 제국일본의 새로운 영토 조선에 대해 근대와 전근대라는 문화진화론적 식민지배 명분을 형상화하고 표상하는 기능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있어 사진그림엽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전과수단이였다. 또한 제국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조선의 각 지역, 특히 명승유람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들은 관광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그 민낯이 낱낱이 소개되었고 거기에는 '표상된 이미지'가 짧은 텍스트와 함께 소비, 유통되었다. 본고에서 다룰 위의 [엽서1]평양명승 사진그림엽서에서 보듯이 평양 현무문의 사진과 함께 "日清の役、原田重吉の奮戦せる玄武門(五百年前建造)"라는 텍스트가 영문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엄청난 양의 사진그림엽서가 유통되었고 특히 조선의 '명승엽서' 시리즈 중 인기가 있었던 평양명승사진그림엽서에 청일전쟁영웅 하라다 주키치라는 개인명이 명시된 짙막한 설명문이 곁들여진 사진엽서이다. 이 엽서는 1930, 4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통되어 시, 공간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환기된 특이한 사진엽서이다.

당시 사진그림엽서에 사용된 명소 혹은 명승에 찍힌 정경사진은 제작자의 의도나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 한 자의적인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엽서사진의 주제(장소) 및 장소에 대한 텍스트(설명)가 배치되는(朴美貞·長谷川怜編 2016:154-155)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경사진이나 명승사진그림엽서의 설명문은 사진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보완할 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미지가 갖는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을 환기시킴으로써 특정표상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소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광명승지가 갖는 안락과 여유로운 물아일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 청일전쟁을 환기시키고 현무문전투에서 커다란 공을 세운 '하라다 주키치'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군국주의미담은 사진그림엽서에 계승되었다.

명치유신 이후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위 근대국민국가로의 체제전환이 온전히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고, 나아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정복고형태의 제국주의적 열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신생 '국민=신민'들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강렬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인 기제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물론 교육이나 천황제 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한 대규모의 국민교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국주의의 면모를 내외에 과시하고 국민=신민들을 내적으로 통합시키기에 는 보다 과격한 기폭제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내적 통합을 위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통합의 상투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은 명치유신 이래 제국일본의 앞날을 가늠하는 첫 대외전쟁이었다. 1894년 7월25일 아산만의 풍도(豊島)에서 청의 북양함대 수송선과 전함을 격침시켜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해전'의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안성천, 성환 전투에 이어 9월15일 평양전투로 이어지는 한반도에서의 육상전이 전개되었다. 평양전투에서는 일본군 전사자 180명(부상자 506명)에 비해 청군 전사자는 2,000여명에 이르렀고 결국 청군은 백기투항 하여 평양성을 내어주고 일본군은 대승을 거두게 된다. 결국 24만 여명의 군대를 동원한 해외에서의 첫 근대전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막대한 배상금과 더불어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에 한 발 내딛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청일전쟁의 승기를 제공한 평양전투에서 탄생한 것이 육군보병 一等卒 原田重吉의 영웅담이다. 충군애국의 군국주의적 언설로 옷 입혀져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윤색되고 또 다른 항목, 요소들이 더해져 국민들에게 전의를 고양시키고 몸 바쳐 충군 애국함으로써 일개 병졸에서 국가영웅으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영웅담이다.

한편 명치정부의 부국강병정책이 첫 해외전쟁에서 평가받게 되는 중차대한 전황이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쟁에 대한 국민여론을 고취시키고 출병한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싸우고 있는 전장의 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신문보도가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井上祐子 2012:2). 본론에서 다룰 하라다 주키치의 영웅미담도 신문에 가장 먼저 보도되었다. 1894년 10월23일자 『読売新聞』에 陸軍一等卒 原田重吉의 군사미담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평양전투에서 결사대 용사가 되어 용맹 과감하게 싸워 金鷄勳章을 수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¹⁾

1) (전략)身ハ早く既に雨より繁き彈丸の下を潜りて玄武門外の懸崖に取附き見る~難なく攀登りたり。(중략)猿猴と雖も上り得まじと頼み切りたる城壁の上に突然日本兵跳り上りたるにぞ門内に犇犇と詰め居たる清兵坐に胆奪はれ人涛打て乍ち騒ぎ出せり(中略)原田一等卒はもとより死を決したることとて、敵の動揺(どよ)めく間に得たりや応と身を翻すより疾(はや)く、群らがる敵中に飛び入り、銃剣を振るって当たるに委(まか)せて衝き伏せ衝き伏せ、猛虎のごとく奮闘せる中、三村中尉も続いて飛び入り、白刃を閃(ひらめ)かして右に左に敵を悩ますその勢い、面を向くべき様もなきに、敵はにわかになげ色沮(しほ)み、目に余る数百の清兵脆(もろ)くも浮き足立ちて2、3歩引き退きし間に、原田一等卒は中尉とともに脱兎のごとく門の扉に取りつき、

즉, "난공불락의 요새 현무문을 앞에 두고 일본군은 돌관(突貫)공격이 실패하여 주춤거리고 있었다. 이대로 공격을 계속하더라도 병력만 소모될 뿐이라 생각한 '미무라 중위'는 감히 적진에 돌입하여 안에서 현무문을 열려고 생각했다. 그 뒤를 이은 자가 '중위의 휘하에 속하는 原田一等卒'이었다. 그는 '소대장님 위험하니 제가 먼저 오르께 하십시오'라며 현무문으로 달려간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이후 인용하는 자료들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본론에서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중 하라다 주키치와 관련된 문헌자료와 신동규 컬렉션(최인택 2017:132)의 사진그림엽서 등을 통하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동원되었던 일개 병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쟁영웅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몰락한 전쟁영웅'으로 묘사되었고,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왜 또 다시 하라다영웅담이 재소환 되어 표상되고 소비유통 되었는지 주인공을 둘러싼 전쟁영웅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전쟁영웅 하라다의 탄생

하라다는 아래의 자료들에서도 확인되듯이 1868년 三河国加茂郡日明村(현愛知県豊田市)에서 原田孝七²⁾의 차남으로 태어나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동경으로 돈벌이를 나가 있던 중 귀향하여 1888년 豊橋歩兵 第18連隊에 입대한다. 3년 뒤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 와 농사일과 잡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처 '요우(ヨウ)'와 결혼 하여 '시키(シキ)'라는 딸을 낳는다.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다시 소집되어 평양의 현무문전투에서 일약 전쟁영웅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고 금의환향하게 된다. 그러나 다액의 부채로 인하여 유랑극단에 뛰어들어 현무문전투를 주제로 한 연극에 직접 출연하는 등 전쟁영웅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로 인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하라다는 러일전쟁에도 중군

力を戮(あわ)せてエイヤとばかりに内より門を打ち開くや、我が兵は怒濤の寄するごとく門内に乱入し、ついにさしも堅固なける平壤の一角を破るに及べり。この一挙、実に平壤の清兵をして軍門に白旗を樹てしむるに至れり(読売新聞、1894年10月23日)

2) 『豊田市史 人物編』에서는 '幸吉'로 되어 있다.

하여 귀향 후에는 篤農家로서의 노후를 지내다가 1938년 만 69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우선 전쟁영웅 하라다의 탄생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중 하라다 주키치에 대해 언급한 서적(錦絵도 포함)을 중심으로 본문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는 제외하고 적절히 아래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1) 『征清戦功美談. 第2編』1894/10/28

이 컬렉션에서 가장 빠른 하라다에 관한 기사는 1894년 10월28일에 발행된 齋藤源太郎 著 『征清戦功美談. 第2編』의 「軍夫保坂唯甫平壤の役原田重吉氏に継ぎ玄武門に先登して敵兵の剣其他を分捕りて功を顕はす」라는 제목의 미담에 “山梨県人保坂唯甫는 (중략) 軍夫로서 명치27년 7월 중에 渡韓하여 군대를 따라 평양 대 공격 때 단신으로 성벽을 넘어 현무문을 열어 武勇絶倫의 명예를 얻었던 三河人原田重吉씨를 뒤이어 질풍처럼 쳐들어가 勇戦激闘하여 군복이 피로 물든 壯夫가 노획한 적의 깃발, 검, 적병의 모자 1개를 가지고 전투가 끝나 귀국(후략)”에 등장한다. 이에 앞서 1894년 10월 15일에 발행된 第1編에 평양전투와 관련하여서는 「佐藤陸軍歩兵大佐平壤の役元山枝隊を率いて激戦驕名を顕わす」³⁾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하라다 주키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위의 호사가 유스케 관련기사가 가장 빠른 것 같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라다 주키치와 관련된 자료는 1894년 10월23일자 요미우리신문의 9월15일자 기사가 가장 먼저이다.

2) 『支那征討英傑伝』1984/11/11

「好武人 十八連隊第二大隊第六中隊長中尉三村幾太郎君 全隊附卒原田重吉君」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략) 세 번에 걸친 돌관 공격에도 여의치 않고 이제 마지막 돌관 공격

3) 기사에는 “평양전투 때에 원산에서부터 인솔한 원산지대를 이끌고 평양 북방으로 진행하여 격전으로 용맹한 이름을 떨친 육군보병 대좌 중5위 훈4등 佐藤正君은 구 카고시마 藩士출신으로 평양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후략)”는 내용으로 하라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을 시도하려는 때 장교 1명과 병사 1명이 서로 도와 성문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 때 병사가 앞장서서 門牆을 넘어 문을 열고 아군을 안으로 들였다. 이 장교와 병사는 누구인가. 장교는 名古屋사람 陸軍中尉 三村幾太郎君이고 兵士는 三河人 原田重吉君이다.

이미 마지막 돌관 공격이 개시되려 하자 중위가 갑자기 뛰어나와 돌관 공격으로 병사를 희생시켜도 보람이 없으니 내가 적중에 돌진하여 저 문을 열겠다 외치고는 뛰어나가자 소대장님 위험하다 소생이 먼저 올라가겠다고 하여 중위에 앞서 절벽을 기어오른 것은 原田君이다.

적병은 갑작스런 기습에 정신을 놓고 우왕좌왕할 뿐 原田氏는 몸을 던져 적병들에게 뛰어들자 중위도 마찬가지로 뛰어들어 전후좌우로 칼을 휘둘러 물리쳤다. 그 사이 原田氏는 문을 열어 아군을 불러들여 큰 공을 세웠다. 중위는 慶應2년(1866) 1월생으로 明治19년(1886) 경 사관학교에 들어가 중위로 임명된 것은 明治23년(1890) 7월이다. 原田씨는 三河사람으로 明治원년(1868) 10월10일 태어나 同国 東加茂郡 豊栄村 大字 日明28번지에 주택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타향을 진전하여 商家의 점원으로 수년을 보내다가 나이가 들어 돈벌이를 위해 동경으로 나왔다가 명치20년경(1887) 고향으로 돌아와 대를 이어 잠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적령기가 되어 지원병으로 豊橋兵營에 입영허락 받은 것이 명치21년(1888) 12월이다. 명치24년(1891)11월 30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이 번 일에 소집, 응하여佐藤大佐를 따라 고급 미중유의 대공을 세웠다. 이번 일로 중위는 바로 대대부관으로 임명되었고 原田씨 또한 上等兵으로 진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훈을 듣고 그 영전에 그칠소냐! 이 또한 분에 넘치는 恩命이 내리지 않겠는가. 아아! 이들 猛將猛士들이여 紫宸殿의 怪鳥를 쏘아 떨어트린 源三位와 猪早太⁴⁾는 어떠한가 그들에게 건주기 부족함이 없다. 서로 서로 진격하여 절벽을 기어올라 돌진하여 성문을 연 것은 宇治川の 佐々木梶原에 비할 것이며 이는 生田의 城門을 연 것과 마찬가지로 한 쌍의 好武人이다.

3) 『帝国軍人名誉列伝』1894/11/16

앞서 발행된 『支那征討英傑伝』과 같은 이가 저술한 책으로 1894년 11월16일에 발행되었다. 이 열전의 서문에는 “天佑를 보전하고 만세일계의 皇祚를 있는 대일본제국 천황은 忠実勇武한 나의 有衆에게 고한다”로 시작되는 천황의 1894년 8월1일자 詔勅이 실려 있고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등 10명의 대신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4) 太平記에 나오는 源頼政와 源三位와 猪早太와 관련한 전설적인 이야기.

「陸軍歩兵一等卒原田重吉君」이라는 제목 아래 상기 『支那征討英傑伝』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침을 삼기며 그들의 돌격을 바라는 아군들의 시선으로부터의 기술로 되어 있다.

(중략)그들은 이미 성안으로 들어갔고 장졸 2인 제대로 개문의 공을 세울 것인지 전군의 눈은 한 동안 문에 고정되었으나 수 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라 성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윽고 현무문이 완전히 열렸는데 성문 안에서 칼을 휘두르며 전군을 부르는 장교와 피에 물든 문을 열며 적병을 쓰러트리고 있는 병사를 본다. 전군의 갈채경과를 일으켜 일직선으로 진격하였다. 이윽고 다다라 두 사람을 보니 사관은 왼손에 상처를 입었고 병사는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더라. 아 아 현무문의 열리고 안 열리고는 실로 전군의 승패가 걸린 것이다 이 문이 열림으로써 전군이 승리한다고 칭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으니...(후략)

이상의 奮戰기술 외에 하라다의 신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이 한 명 있었고 처와 딸이 있었으며 전답은 조금 있었지만 풍족하지 못했다는 점. 온후한 성격으로 청렴결백하며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농사일을 싫어하여 얼마 되지 않는 땅은 남에게 맡기고 일용직 막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 이유는 “소생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부러 농공 일을 하지 않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몸을 바쳐 국가에 매진하기 위해”라고 하였다. 결국 재소집에 응해 평양전투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는 점 등이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소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소집에 응하자마자 마치 군문에 들어 서 있듯이 군복모습으로 나타나 결연한 행동을 취한 그를 칭송하고 있다.

또한 金鷄勳章⁵⁾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중략)地位의 高下를 막론하고 자

5) 金鷄勳章은 明治23年(1890)에 明治天皇에 의한 「金鷄勳章創設ノ詔勅」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전쟁 등에서 무공을 세운 장병, 군속 등에게 수여되는 유일한 무공 훈장. 功1급부터 功7급까지 무공에 따라 수여된다. 功1級은 900엔부터 功7級은 65圓의 연금이 지급된다. 昭和初期 당시의 이등병 월급은 8圓80錢으로 상당한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었다. 연금은 종신지급이었으나 중일전쟁 개전 후에는 수급자가 급증하여 국고부담이 증대하게 되자 1940년에 일시금제로 바뀌었고 국제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하라다는 1895년 11월16일에 功7급과 연금 100엔을 하사 받았다(내각관방국 관보 제3724호 명치28년 11월26일)고 하니 엄청난 특혜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네처럼 하찮은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더라도 金鷄勳章을 수여하였다. 자네와 같은 자들이 天恩의 두터움에 감사하여 奉天에 北京에 또한 玄武門당시의 용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현창하고 있다. 한편 가족에게 보낸 서한내용도 소개되었는데 "軍人이란 일단 전장에 나가게 되면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가족들은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단지 바라기는 딸에 대한 것인데 나중에 성장하여 天晴軍人の 자식이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4) 『征清壯絶日本軍人義勇伝』 1894/11/28

「稀世の勇士原田重吉氏 絶大の勳功兵」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자료3)의 기술보다 미화, 확장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서술부분을 소개한다.

우선 청군이 진을 치고 있는 현무문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고(この門は平壤中要害無比にして而して門は皆泥土大石を以て塗り固めたる最大堅牢のものなり) 지리상 우위를 점하는 높은 곳에서 맹렬한 연발사격으로(敵は門の上部なる堅塁により連発銃口をそろえて乱射する勢いの猛烈なること当たるべからざるものあり) 아군의 희생이 심대하였는가(我が死傷の夥しきを見るのみにして苦戦実にいふべからず)에 대해 장황하게 전개한 뒤 그러한 위협에 맞서 아군의 희생을 막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용감무쌍하게 성벽을 올라 적진에 뛰어들어 분투하는 모습(原田氏は虎のごとく怒り獅子のごとく荒れ単身一躍勇進すると見る間に弾丸寸地を余さず奔射し来るなかを冒し一丈に余れる玄武門の城壁をよじ登り門内に飛び入り山なす敵を追いのけ追いのけ猛戦奮闘して門障をひらかんとす)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 原田의 용맹무쌍한 분투로 아군은 승리를 쟁취하였고 그의 무공은 四海에 널리 알려졌으며 희대의 대훈공을 세웠다(氏は万夫不当の勇を以て先登第一玄武門を掠奪し開閉して武名を四海に博したるなり. 平壤の役稀世の大猛勇を現し稀世の大勳功を立てたる者は一等卒原田重吉氏). 결국 하라다의 무공은 전군에 알려졌고 사해에 울려 퍼진 찬탄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그 공으로 즉시 상등병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위훈을 상신했다(氏の雷名は直ちに全軍に響きわたり四海に轟き賛嘆感賞今なお止まず(중략)氏は功を以て即日上等兵に進められなお偉勲をその筋に上進したり)이라고 한다. 이어 그가 태어난 三河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영웅호걸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카마쿠라 말기 남조의 무장이었던

아스케 시게노리에 버금가는 인물로 묘사하여(三河の国古よ)多く豪傑を出す 南朝の忠臣足助重範この地におこつて勤王の徒天下に響応し東照神君この地に勃興して名将勇士また雲のごとくに現わる)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덧붙여 상기 1), 2), 3)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가족사항과 관련하여 부친의 이름은 孝七이며 모친은 일찍 여의고 형의 이름은 菊五郎라 하였다. 처의 이름은 요우(ヨウ)로 2살 난 장녀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농토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없어 남의 집 머슴일로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또한 입대 후의 하라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그는 사격술이 뛰어났고 기계제조에 능하여 특히 장에물 뛰어넘기를 특기로 하여 상을 받을 정도였으며 현역 때에는 규율을 준수하고 품행이 방정할 뿐만 아니라 학술 기예에도 숙달하여 선행증서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씨의 守妻 요우(ヨウ)가 三河尚武會員에게 이야기 한 것 중 重吉는 비상소집 1개월 전부터 매일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야간에 마당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병영훈련 흉내를 내며 가정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조선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소양을 엿볼 수 있듯이 소용 후 전장에 임하기 전 가족에게 보낸 두 번의 서신 중에 "군인이란 가족을 두고 전지에 임하면 두 번 다시 생환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가령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가족들은 결코 미련 갖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기에 여한은 없으나 단지 마음 하나 쓰이는 것은 딸아이다. 내게 만일의 일이 있더라도 성장 후는 天晴軍人の 자식이었다는 것을 가정교육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쓰고 있다.

5) 『玄武門攻撃隨一軍功者』 1894/11月

[니시키에1]은 『玄武門攻撃隨一軍功者』라는 제목으로 絵師・水野年方에 의해 1894년 11월 제작 출판된 것이다. 日清戦争錦絵美術館에서는 『063玄武門攻撃隨一軍功者原田重吉氏先登奮戦図』로 소개하고 있다. 현무문 성벽에 오른 하라다가 빗발치는 총알에 아랑곳 하지 않고 홀로 총검으로 청군을 공격하며 분전하는 장면이다. 하라다의 용맹에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는 '비겁한 청군'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히 과장된 구도로 그려진 영웅화로 제작, 유포되었다.



[니시키에1]

‘니시키에(錦画)’는 ‘多色木版画’로 에도시기 성립된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진 신문과 잡지의 시사보도에 등장하는 것은 1874, 5년경이다(井上祐子 2012:20).

즉 ‘報道画’로서의 니시키에가 이 시기에 화보집이나 신문, 잡지에 이용되었다. 위의 니시키에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청일전쟁과 관련한 니시키에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에 다수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의 성격상 보도화로서의 니시키에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룰 여유가 없지만, 다른 기회에 상술할 예정이다.

6) 『滑稽大尽 : 日清事件大新作』 1894/12/18

위 문헌은 대본집으로 「原田重吉氏玄武門を破る」라는 목차에 환등회 대본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7) 『日清戦争幻灯演劇筋書(中巻)』 1894/12/23

이 문헌도 위와 마찬가지로 환등회상영⁶⁾을 위한 대본집이다. 目次에 「原田重

6) 일본의 환등기는 에도말기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원래는 양잠교육용으로 사용되었는데 1895년 3월31일 사이타마현 아라시야마(嵐山町)에 있는 斑溪寺에서 환등회가 열렸을 때 교육,

吉名譽の開門 三幕」

8) 『征清独演説』 1894/12/28

「兵卒原田重吉玄武門を破る」라는 목차에 120자 정도의 단문으로 기존내용의 되풀이. 새로운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抜群勇士原田重吉』 1894/12/30

이 자료는 凱旋城士라는 당시의 작가로 보이는 저자에 의해 기술된 내용으로 하라다 주키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평양성전투의 상세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저자에 대해서는 불명하지만 당시 평양전투상황을 입장감 넘치게 묘사 하면서 구체적인 군의 편성 상황이나 전투전개상황을 시계열로 기술하는 등 상당한 전황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축적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면에는 大島혼성여단처럼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해 장교 및 하사관 병들도 많이 희생하였고, 제3사단의 大迫혼성여단 중 보병 18연대 및 포병 1대대, 공병 1대대(1중대 결여), 기병 1소대를 조직한 佐藤正가 이끄는 지대(枝隊)는 14일의 東明에 그 1대를 나누어 패주하는 청병의 격퇴임무를 부여하여 순안에 두고, 사토대좌는 다른 대원들을 이끌고 전진하여 오전 4시경 적의 전영진지를 1리 앞에 두고 높은 곳에 다 다라(후략)" 적의 진영을 정찰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현무문 공격 장면에서 "보병18연대 소속 중위 三村幾太郎씨 앞으로 나와 이대로 돌관을 감행하더라도 의미 없이 사졸을 희생할 뿐 의미가 없으니 적중에 돌입하여 문을 열겠다며 뛰쳐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큰 목소리로 '중위님 위험하니 제가 먼저 오르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나타난 자가 있었으니 미무라중위 휘하의 一等卒 原田重吉라는 자였다. 분연히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 아래 이를 뚫고 현무문 외벽에 "에이아'라며 달라붙어 점점 몸을 들어가며 오르는 모습이 원숭이

실업, 청일전쟁 등이 방영되었고 약 60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환등기는 검은 에나멜로 칠한 판금으로 앞쪽에 렌즈가 달려 있으며 앞면의 슬라이드 삽입구에 유리판(種板)을 슬라이드시켜 삽입하게 되어 있었고 광원은 석유램프였다고 한다. 嵐山町web博物誌 「手島精一と幻灯」.

<http://www.ranhaku.com/web06/06lifestyle/01sei06.html>

가 나무를 오르듯이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이 묘사 역시 최초의 보도기사인 요미우리 모란대의 높은 곳에 포진한 청의 대포공격과 기총사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군의 희생을 막아내고 아래에 있는 마지막 청의 보루인 현무문을 격파함으로써 평양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극적인 단계에 하라다 주키치의 용맹은 대미를 장식하는 영웅담의 탄생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저자는 “지금 씨의 勇名은 세계에 발양하여 原田重吉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고 여기에 씨의 生伝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세상에 나타났고 아!아! 씨의 명성은 이제부터 오랫동안 세계에 전해짐과 동시에 일본의 국위는 점점 발휘되고 求光閣 사장이 출판을 찬동하여 줄필 용기 내어 한 마디 서사에 부친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하라다는 체격이 크고 스포도 강하며 농사보다는 벌목이나 수렵을 하며 생활하였고 몸도 날렵하고 사격의 명수였다고 한다. 동경으로 돈벌이를 나갔을 때 다소 간의 학문을 배우고 귀향하였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1887년 고향으로 돌아와 1889년 징병적령기가 되어 12월 지원병으로 도요하시(豊橋) 제 18연대 제6중대에 입영하여 1890년 10월 一等卒이 되었고 1891년 11월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처를 맞이하여 1893년에 딸아이를 얻었다고 한다. 하라다는 장애물넘기와 사격술, 기계체조에 능하였다고 앞에서 소개한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복무 중에 군으로부터 수상한 상장 사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賞状写 歩兵一等卒 原田重吉

障碍物跳越優等之証 明治二十四年七月一日

歩兵第十八聯隊長陸軍歩兵中佐 従六位勲四等 小島政利 印

②善行証書写 歩兵第十八聯隊第六中隊 歩兵一等卒 原田重吉

右現役中品行方正勤務勉勵學術技芸に熟達す因て此の証を付与す
明治二十四年九月三十日

歩兵第十八聯隊長陸軍歩兵中佐 従六位勲四等 小島政利 印

③善行証書写 歩兵一等卒 原田重吉

行狀方正勤務勉勵技芸熟達特に射撃及器械体操に長じ隊中の模範たるを表彰す
明治二十四年九月廿六日

歩兵第十八聯隊第六中隊長陸軍歩兵大尉 従六位勲五等 新保正 印

또한 22세의 처 요우는 가난한 집으로 이사와 가사를 돌보기보다는 군문에 들어가 나랏일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남편 대신 가게를 책임지고 숯 포대를 만들어 가게에 보태면서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딸의 양육에 힘쓰는 등 동네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는 현모양처의 내용이 더해졌다. 또한 처음으로 '두살이 되는 시키(シキ)'라는 딸아이의 이름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생활이었지만 모녀는 남편의 무사건강과 발군의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에 신불에 기도를 올리고 있던 중 10월16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내용인 즉은 '자신은 군무에 충실하고 있으니 어린 아이의 양육을 제 일로 하여 소생의 귀국을 기다려 줄 것과 이 전에 수취인 부담으로 보낸 편지는 인지 등을 살 수 없어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바라며 앞으로 무료 서한이 일인당 월 몇 통에 한해 보낼 수 있으니 그리 알 것'이라는 내용이다. 추신(二伸)에는 '저번 15일 전투에서 第六中隊 성의 동남부에 있는 현무문을 점령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 그 문을 연 전공으로 24일 보병 상등병으로 진급하였기에 알림. 在朝鮮国平壤第三師團 歩兵第十八聯隊第六中隊 原田重吉 九月三十日 原田よどの'라는 내용인데 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전공과 진급을 알리고 있다.

한편 현무문의 전공소식이 알려지자 처와 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동경으로부터 錦絵나 石版画를 가지고 오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극가의 각색으로 동경의 歌舞伎座에서는 「海陸連勝日章旗」라는 제목의 小春狂言의 4막에 「平壤玄武門討ち入りの場」에서 명배우들에 의한 화려한 연기가 펼쳐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10) 『教科摘要 討清軍隊 大捷軍歌(2編)』 1894/12/31日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찬미하는 군가집인데 악보도 수록되어 있다. 原田重吉라는 제목의 군가는 山田源一郎작곡 大和田建樹작사로 가사는 아래와 같다.

第一 忠勇武壯の我兵は 大同江をおしわたり 卑怯未練の敵軍を 平壤城に囲みたり 時こそ来つれいぎ進め 勝つべき軍(いくさ)は今日なるぞ

第二 忽ちおこる進軍の 喇叭の声に勇み立つ 兵は三面一撃の 下に乗っ取る牡丹台 士気はますます奮いつつ 山をも抜かんばかりなり

第三 立見少将この時に 朔寧支隊をさしまねき 台下にそびゆる玄武門

いで破らんと打向かふ、門は名だたる堅固の地 死力つくして守りたり
 第四 雨と降りくる弾丸を 分けつくぐりつ前に立つ 三村中尉を呼びとめて 進
 むは誰ぞ部下の卒 隊長あやふし我ゆかん あとより続け我兵よ
 第五 見るまに敵墨躍り越え むらがる敵をなぎふせて 内より開く玄武門
 はや手に入れり破れたり 天も崩るる万歳の 声は四方に起りたり
 第六 わが日の丸の旗影は 大同江を照らしたり わが日の丸の旗影は
 平壤城をおほひたり 原田重吉先登の ほまれを歌へ国の民

11) 『征清百傑伝 上巻』 1895/2/18

이 자료에서 처음으로 현무문공격을 실시한 것은 原田重吉, 三村中尉 2명만이 아니고 15명의 돌격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주요내용을 발췌해 보면 9월16일 三村中尉는 선두공격대 15용사를 선발하여 개문명령을 내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임할 것을 결의하고 原田重吉 및 村松明太郎, 宮本平作, 五島辰吉, 栗田梅吉의 5명이 돌격하려 하였으나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原田 혼자서 오르케 명하였다. 그러나 발을 딛고 올라설 곳이 마땅찮아 몇 번이고 미끄러져 용이하게 오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村松明太郎가 밑에서 몸으로 바쳐 오르케 하고 총검을 건네었다. 현무문 안으로 들어간 重吉가 총개머리 판으로 열쇠를 부수어 문을 열자 나머지 돌격대가 일제히 쳐 들어가자 적이 사격을 가해 와 加藤太郎吉, 原田霜吉 두 명이 사망하고 重吉와 栗田梅吉는 부상을 입는다. 이 공으로 重吉는 上等兵으로 진급하고 二等曹長까지 오르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각 신문에 보도되었고 극장에서는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여 남녀노소 귀천에 관계없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5명 버전).

12) 『討清軍人十勇士』 1895/3/1

청일전쟁 10명의 군인용사 열전으로 상기 자료들과 내용 상 큰 차이가 없다.

13) 『戦時教育修身訓 第1編』 1895/3/11

이 자료는 전시교육방법을 심상고등소학교에서 수신교과목 교수법에 응용하기 위해 교사용 참고서로 편집된 것이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천황의 宣戰詔勅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체'의 특수성과 군의 편제와 조직, 국내외의 상황, 일본제

국의 조선 啓誘로부터 청일전쟁의 현황에 이르기 까지 천황과 국가를 위해 충성을 강요하는 전시교육에 군국미담을 이용하는 내용이다. 原田重吉와 관련하여서는 '玄武門の先登者原田重吉氏'라는 제목으로 현무문 전투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모란대는 文祿의 役 때 小西行長가 고전한 곳'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무문전투에서의 승리가 갖는 역사적 당위성을 임진왜란까지 끌어올려 호명, 소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4) 『征清三勇士伝』 1895/4/4

成歡전투, 평양전투, 金州城전투에서의 육군 3용사의 열전을 합쳐 놓은 것으로 原田重吉부분은 자료9)의 『拔群勇士原田重吉』와 같은 내용이다.

15) 『征清勇士原田重吉』 1895/4/22

청일전쟁의 전체상황이나 일본군의 작전행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原田重吉와 관련하여서는 위의 사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16) 『出師美談』 1895/5/5

전쟁미담집으로 42話가 기술되어 있는데 原田重吉와 관련하여서는 '原田重吉の拔勲'이라는 제목으로 위 자료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짚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17) 『帝国軍人龜鑑』 1895/9/7

이 자료는 위의 자료3) 『帝国軍人名譽列伝』(堀本柵 著、東雲堂, 1894)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陸軍上等兵原田重吉君'이라는 목차에 현무문전투에서 原田重吉 외에 11명의 조력자가 있었지만 原田의 무훈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12명 버전).

18) 『義勇奉公 少年龜鑑』 1895/9/26

서두에 1984년 8월1일 청에 대한 천황의 선전포고 詔勅이 실려 있고 청일전쟁

때 천황의 위덕에 힘입어 혁혁한 전공을 올린 장교 및 병사의 미담을 20여 편 실어 소년자제들의 귀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소학교 수신교과의 재료로 또는 가정용 독본으로 꾸며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본서는 오로지 소년자제들에게 義勇心を 고취시킴과 동시에 애국기상을 양성시키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라다 주키치 관련내용은 '第九 玄武門の先登 其一 原田重吉'⁷⁾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친 돌관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12명의 병사를 모아 결사대를 조직하여 현무문을 여는데 성공하였다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어 있다. 평양전투 승리 후 약 1년이 지난 명치 28년 9월에 출판된 도서인데 앞의 자료18) 『帝國軍人龜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된 것으로 12명 버전이다. 여기에서도 비록 조력자가 있었지만 그의 공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무문에 가장 먼저 오른 자는 하라다 주키치가 아닌 村松明太郎라는 병사의 등장이다.

'其二 村松明太郎'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평양전투 때 그렇게도 견고한 현무문을 부수고 드디어 우리 군이 대첩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에 기술한 原田重吉의 힘에 의한 것임은 논의 여지가 없지만 原田와 같은 소속의 12용사 중 村松明太郎(むらまつめいたろ) 또한 原田에 양보할 수 없는 勲功이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싣는다. 당시 개문의 명령을 받아 성벽을 넘으려고 한 자는 三村中尉를 위시하여 12명의 용사였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오른 자는 村松明太郎이다. 明太郎가 용사들에 앞서 벽을 넘자 적군 장교로 보이는 자가 권총으로 明太郎의 뒷덜미를 가격하자 이에 용기백배하여 분연히 벽을 뛰어 내려 그 자와 맞붙어 싸우던 중 대퇴부에 총탄을 두 발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적 한 명을 쓰러트렸다. 이 때 아군이 더하여 분투맹공을

7) "명치 27년 9월 15일 평양전투에서 우리 元山, 朔寧兩支隊가 대단한 분전으로 하루 아침에 적의 보루를 함락하고 나아가 모란대를 점거하며 과속지세로 현무문에 당도하였다. 문은 찰흙으로 견고하게 덧칠하였고 지키는 적들도 정예군이다. 우리 군이 突貫공격하였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실패하였다. 이 때 제8연대 6중대에 속하는 三村中尉가 先頭開門의 명을 받아 병사 12명을 선발하여 죽음을 결의하고 현무문의 胸壁을 넘어 돌관공격에 성공하여 문으로 돌격하였다. 적병은 이들을 향해 총으로 응하며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12용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저돌적인 공격에 점차 힘을 잃고 있었다. 이 때 한 명의 용사가 피아격전의 틈을 타고 급히 문을 부수어 열자 때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은 함성을 울리며 한꺼번에 들이닥쳐 적을 쳐부수었다. 현무문의 개폐여부는 전군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개문의 偉功을 세운 희유의 대승에 기여한 용사는 누구인가. 바로 原田重吉이다"

펼치자 적이 물러서는 사이 原田重吉가 기민하게 뒤쪽의 문을 열어 아군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明太郎는 愛知県中嶋郡神明津村(現在の愛知県稲沢市) 평민 日比玄隆(ひびげんりゅう)의 장남으로 집안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친척에게 맡겨져 성장하였다. 1888년 징병검사에 합격하여 제3사단 보병 18연대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아 어느 집의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의협심이 있고 독실한 성격으로 가사를 잘 돌보고 일을 열심히 하여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894년 8월4일 예비역 소집장이 도착하자마자 가사를 친구에게 맡기고 곧바로 징집 장소로 달려갔다. 이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관명을 준수를 엄히 여기는 것으로 현무문 先登으로 제1의 위훈을 세운 것 또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덧붙여 기술하는데 原田, 村松양인 모두 훈공에 의해 바로 上等兵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여러 전장을 거쳐 1985년 6월에 명예를 어깨에 걸치고 전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무사히 귀향하였다.

19) 『中等教育作文教科書補遺』 1896/2/17

중등작문교과서의 용례집으로 原田重吉와 관련하여 '原田重吉玄武門ヲ攀ヅ'라는 제목 아래 짧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지 않았다.

20) 『教育勅語 征清美談』 1896/5/4

서두에 교육칙어와 천황의 '宣戰の大詔'가 실려 있다. 교육칙어를 해제하여 설명하고 청일전쟁의 미담을 담고 있다. 原田重吉와 관련하여서는 '原田重吉玄武門の先登をなす'라는 제목으로 15명 결사대 버전인데 결사대의 실명이 몇 명 적시되어 있다. 내용은 앞의 사례11) 『征清百傑伝. 上卷』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原田를 밑에서 떠 바친 자가 村松明太郎에서 栗田梅吉를 바꾸었고 村松明太郎의 이름이 村松朋太郎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加藤太郎吉, 原田霜吉 2명은 즉사하였고 原田重吉, 栗田梅吉 2명은 중상, 三村中尉, 石上常蔵(軍曹), 村松朋太郎 3명은 경상이었다는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다.

21) 『通俗征清戰記』 1897/9

'第廿八回 三村中尉と原田十吉'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10명 버전으

로 부대명칭과 '原田重吉'의 이름이 '原田十吉'로 기술되어 있는 등 다소 이전 버전들과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에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어 있지 않다.

22) 『日清戦争異聞—原田重吉の夢—』 1935/2

萩原朔太郎의 단편창작으로 상, 하로 되어 있는 산문형태의 글인데 청일전쟁의 일말을 하라다의 꿈을 통해 엮어낸 짧은 글이다. 글에서는 당시의 '嫌清' 현상을 노골적으로 차용하여 '변발에 돼지꼬리 머리의 아편쟁이가 진장에서 도박을 하는' 청군과 '늙어 망령 난 노인'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몽롱한 하라다의 기억을 서로 엮어 날조된 표상의 기억으로 그려내고 있다. 上の 모두에 "陸軍工兵一等卒 原田重吉는 출정하였다. 암울한 북국지방의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 교육도 못 받고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 남자는 군대에서 그의 최대 명예와 자존심을 배양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陸軍工兵一等卒'이 아닌 '陸軍歩兵一等卒'이었고 태어난 곳은 暗鬱한 북국지방이 아닌 지금의 愛知県 豊田市에서 태어났다. 물론 그간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하라다에 관한 이러한 신상을 사쿠타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미화된 영웅담에 대한 작가의 의도된 윤색이었을 것이다.⁸⁾ 또한 下에서는 "늙어 망령 난 노인'으로 알콜 중독에 빠진 두뇌는 기억을 견지하지 못하고 바깥 마른 림펜의 어깨 위에 공허함이 떠 돌뿐이었다. 먼 옛날 청일전쟁에 나가 작은, 별 볼 일 없는 공을 세웠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공이 무엇이었는지 전장이 어디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다 몽롱하게 사라진다"는 기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라다가 꾀 덧없는 전쟁영웅의 꿈으로 치환된 '反戰, 反軍'적인 단편(内海紀子 2000:59쪽)으로 평가받고 있다.

23) 『大國史美談 卷7』 1943/11/15

'제66장 日清戦争(明治二十七八年戰役)-平壤の戰'이라는 제목 아래 中尉三村幾太郎이하 16명에 의한 현무문공격 내용이 실려 있으나 앞서 자료들에 더하여 '평양공격약도'와 더불어 현무문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청군의 상황에 대한 설명

8) 구체적인 작품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内海紀子(2000:58-66)을 참조 바란다.

도 곁들여 있다.

한편 原田와 관련하여 '原田重吉のその後'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1932년 1월18일 報知新聞에 同新聞記者가 玄武門의 勇士原田重吉老(65歲)를 그의 고향 愛知県東加茂郡松平村日明에 방문한 기사가 실려 있다. 여기에 그 중 하라다의 만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摘録한다. (上略) "저는 어릴 때부터 나무타기를 좋아하여 입영 후에는 기계제조로 두 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무문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듣고 있노라면 다시 한 번 출정하여 헤치우고 싶은 마음이지만 병(중풍)의 몸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신문은 볼 수 없지만 라디오 뉴스는 꼭 들으려 한다는 이야기. (중략) "청일전쟁 때는 牛莊, 田庄台까지 갔습니다만 러일전쟁 때는 鉄嶺까지 갔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주는 너무 추웠지. 北滿警備 사람들을 생각하면 병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네요"

듣자니 현무문의 무공을 세워 개선했을 당시 축하객들이 너무도 많이 와서 드디어 술로 쓰러져 당시 돈으로 천 몇 백 엔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런 말들도 많았습니다만 할 수 없이 무대에 서게 된 것도 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 후 원래의 농업으로 되돌아 와 전장에서 돌격하는 심정으로, 평시에는 나라의 생산력증가에 노력하는 심정으로 쌀, 보리 생산에 정진하고 자급의 燠炭肥料을 안출하여 보통 一反步 당 七俵를 수확할 때 그 배가 되는 十四俵 수확에 성공하여 1923, 4년에 걸쳐 郡農會와 知事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였다. 따라서 현무문용사는 지금 東加茂郡에서 으뜸가는 篤農家로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제2장 전쟁영웅 하라다의 표상과 기억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무문전투에서의 하라다의 활약상은 대단히 단순한 플롯으로 이루어진다. 즉, 고전을 면치 못하던 청군과의 전투에서 난공불락의 현무문을 열어 문 안에서 저항하는 청군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성문을 뚫는 2차례의 突貫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아군의 희생을 막기 위해 미무라중위가 홀로 성벽으로 돌격하려 하자 하라다가 중위 혼자서는 위험하니 자신이 가겠다고 나선다. 결국 성벽을 기어올라 적진에 몸을 던져 부상을 입으면서도 개문에 성공하고 아군을 불러들여 작전에 성공한다.

그런데 자료1)에서도 보듯이 하라다의 뒤를 이어 돌격한 군부 保坂唯甫의 존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일찌감치 1894년 10월23일자 『読売新聞』에 陸軍一等卒 原田重吉의 군사미담이 원형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탄환을 뚫고 현무문 바깥의 암벽에 붙어 어렵지 않게 기어 올랐고 '죽음을 각오한 하라다는 동요하는 적진에 뛰어들어 총검을 휘두르며 맹호처럼 분투하고 있을 때 미무라 중위도 뒤를 이어 뛰어내려 칼을 휘둘러 좌우의 적들이 겁을 먹고 2,3보 뒤로 물러서는 사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문을 열자 아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결국 견고한 평양의 일각을 쳐부수어 청군은 백기를 들게 되었다'가 원형이다.

이후 자료2)에서는 하라다의 출신지역, 성장배경, 입대 전까지의 내력이 더해지고 현무문전투에서의 무공으로 상등병에 진급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된다. 자료3)에서는 하라다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데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가난하였지만 '청렴결백'하였고 전역 후에는 주어진 농사일에 전념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몸을 바쳐 국가에 매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 추가된다. 또한 金鵝勳章수여와 관련하여 '자네처럼 하찮은 일개병사에 지나지 않더라도 金鵝勳章을 수여'하였는데 '자네와 같은 자들이 天恩의 두터움에 감사하여 봉천 북경에서 현무문 당시의 용기를 발휘'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자료4)에는 입대 후의 하라다에 대해 사격술이 뛰어나고 기계제조에 능하였는데 특히 장애물 뛰어넘기를 특기로 하여 상을 수여받았고 품행방정, 학술기에 우수자였다고 현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에 죽음을 각오한 군인에게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며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딸아이에게 '청천군인'의 자식이었음을 잘 교육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참 군인의 면모를 발양하고 있다.

자료5)에서는 니시키에를 통하여 자료6), 7)에서는 환등회 상영을 통하여 하라다의 무공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자료9)에서 하라다의 용맹이 '세계에 발양'하여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는 찬미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요우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의 무사건강과 발군의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신불에게 기원하는 참 군인의 지혜로운 현모양처로 소개하고

있다.

자료10)에서는 6절에 이르는 군가의 제목이 '하라다 주키치' 그것 자체이다. 가사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여 온 자료들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망라하여 '충군애국' '임전무퇴'의 군인상을 찬미하고 '대일본제국'의 일장기 아래 전재영웅 하라다를 현창하는 군가로 작곡, 작사되었다.

자료11)에서는 처음으로 현무문전투의 영웅은 하라다, 미무라 중위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15명의 결사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소위 말하는 15명 버전이다. 또한 현무문전투에 대한 신문보도와 극장에서의 연극상연을 통해 남녀노소 귀천에 관계없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거듭 발행되는 자료들에 의해 하라다의 영웅담은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해 가며 수신교과의 보조교재로, 유명한 시인인 萩原朔太郎의 창작물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되풀이하여 정리해 보면, 최초로 신문보도에 의해 하라다의 이 알려지게 되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가난한 농촌 출신의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지만 혁혁한 무공을 세워 특진과 훈장을 수여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기에 충분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충군애국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되어 연극, 환등회 상연, 잡지, 신문 등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환기되고 소환되어 유통되었다. 그러나 자료23)에서도 보듯이 전쟁영웅 하라다의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899년 10월 14일자 東京朝日新聞에 고향으로 돌아 온 하라다는 '어떤 연극가'의 유혹을 받아 '新俳優'가 되어 연극계에 투신'하여 스스로가 '평양공격의 실황을 연기하려고' 마음 먹고 극단에 들어갔으나 어떤 기사에서는 '타락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1904년 1월17일자 『평민신문』에는 "저번 二十八戰役 때 현무문의 용사라는 것 때문에 일시기 그 명성을 천하에 올린 그 하라다 주키치군은 전쟁이 끝난 뒤 생활이 궁핍해져 궁여지책으로 전쟁의 명예로 밥을 먹을 생각에 다다라 드디어 유랑배우가 되기에 이르렀다. 세인들은 타락하였다고 그를 맹렬히 공격하였고 결과, 그는 목숨을 걸고 수여받은 훈장 등을 빼앗기고 10년 뒤 오늘날에는 그의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井上祐子 2012:2-60)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大日本雄弁会講談社(현 講談社)가 발행한 인기대중오락잡지 『キング』 1927년 3월호에 藤森成吉가 쓴 「馬の

足」라는 소설에서 하라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략) 저 첫 등성에서는 단지 原田重太郎만이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실은...錦太郎의 이야기에 의하면...그는 제1의 겁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곧바로 성문을 기어오른다든지 하다가 모조리 총을 맞아 끝났지만 그는 성문 한 쪽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청군이 도망가게 되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때는 화려하게 謳歌되었지만 나중에는 도박을 하게 되고 제국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흉내를 내고 결국에는 촌스러운 연기자로까지 떨어져 현무문연극을 売物로 하여 돌아다니는 꼬락서니. 종말에는 거지처럼 되어 어디선가 횡사하였는지 그 최후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内海紀子 2000:60).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도 하라다 주키치를 하라다 주타로로 하는 등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표상되어 온 전쟁영웅이미지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몰락한 전쟁영웅'으로 표상된다. 당연히 零落한 전쟁영웅 하라다에 관한 미디어의 반응은 잠잠해졌다. 그런 데 수 년 후 미디어에 다시 하라다가 등장한다. 1932년 遠藤早泉의 『少年日清戦争物語』에서 “우리 조국 일본이 용이하지 않은 중대 시국에 재회하고 있는 오늘날”에 최초의 대외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을 다시 되짚어 본다는 의도에서 ‘현무문 용사’ 하라다가 다시 등장하는데⁹⁾ ‘중대시국’이란 만주사변을 이른다.

이 외에도 몇몇 미디어를 통하여 또 다시 전쟁이 길로 들어선 昭和의 비상시국에 하라다의 ‘영웅담’은 재소환 되어 ‘타락한 전쟁영웅’의 이미지를 덜어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또 다른 영웅의 표상을 환기시키고 있다(内海紀子 2000:61). 그리고 자료23)에서는 “원래의 농업으로 되돌아와 전장에서 돌격하는 심정으로 평시에는 나라의 생산력증가에 노력하는 심정으로” 농업에 전념하여 1923,4년에 걸쳐 郡農會와 지사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이로써 전시에는 전쟁영웅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평시에는 농업전사로 재탄생하여 타의 모범을 충실히 실행하는 ‘하라다상’이 만들어졌다. 즉 ‘충군애국’에서 ‘생활애국’을 통해 평범한 신민의 또 다른 형태의 ‘애국의 생활화’에 전념하는 하라다로 표상되어 왔다.

9) 자료입수의 한계로 内海紀子(2000:61)에서 재인용한다.

결론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하라다의 전쟁영웅담은 1894년 10월23일자 『読売新聞』의 기사로부터 시작된다. 미디어에 의한 전쟁보도가 이러한 전쟁영웅미담 탄생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근대 미디어의 탄생과 그 역할은 전쟁이라는 폭발적 기제에 힘입어 군대와 일반사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일반적으로 전쟁미담이라는 프로파간다가 국가의 전쟁정책수단으로 간주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점에서(増子保志 2015:35)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디어 보도가 신속하되 정확해야 한다는 논리적 가치가 프로파간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 왜곡되고 과장된 또 다른 정보 생성으로 인해 담보되지 못했다.

미디어에 의한 전쟁보도가 이러한 전쟁영웅미담 탄생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190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소학교 수신교과서에도 실린 대표적인 전쟁영웅담으로 일컬어지는 청일전쟁 당시 나팔수였던 木口小平(きぐちこへい)의 사례¹⁰⁾를 들 수 있다. 기구치 고헤이는 전투 중 돌격나팔을 불다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지만 총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계속 돌격나팔을 불다가 결국 나팔을 입에 문채 사망하였다는 줄거리다.

일개 병졸에 의한 전쟁영웅미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나팔수 기구치에 대한 영웅담의 주인공은 실은 같은 날 성환전투에서 사망한 白神源次郎(しらがみげんじろう) 歩兵一等卒로 5사단 본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기구치가 아닌 시라가미가 그 주인공으로서 열렬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야 기구치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시라가미도 나팔수였지만 그는 이동 중 익사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7년이 지난 1902년부터는 교과서에 기구치가 주인공으로 실리게 되었다. 미디어보도의 오보였던 셈이다.

이와 같은 전쟁미담은 명치정부에 의한 새로운 제국일본군 구성에 평민출신의 일반 징집병의 용감함을 찬미함으로써 일개 병사의 전투행위가 직접 전쟁의 결과

10) 교과서에는 돌격나팔을 불며 총탄에 쓰러지는 삽화와 함께 “キグチコウヘイハ イサマンク イサニデマシタ。テキノ タマニ アタリマシタガ シンデモ ラッパヲ クチカラ ハナシマセンデシタ”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생정신을 그려내고 있다(增子保志 2015:28). 따라서 청일전쟁에 즈음하여 장교나 장군이 아닌 평민출신의 일개병사가 국가영웅으로 호명된 것은 충군애국의 길로 들어서면 일개 병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영웅 신화의 창조를 미디어가 매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실을 확대, 미화함으로써 전의를 고양시키고 대대적인 보도를 통하여 당사자를 軍神化(增子保志 2015:34)하고 멸사봉공, 애국충군의 모델로 만드는 작업에 신문, 잡지, 사진, 니시키에 등의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과정에 당초 잘못 된 정보로 인해 그 대상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시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일단 생산되고 유통되어 온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실 그것 자체보다 과장되고 미화된 영웅담이 홀로 질주하여 전쟁이데올로기화 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때 전쟁 상황을 전달하는 주요 미디어는 다름 아닌 신문과 잡지였다. 마침 일본군은 처음으로 군 내부에 전쟁을 기록하는 사진관을 결성하고 종군기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자와 사진사의 종군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도 청일전쟁 때였다(井上祐子 2012:3-4쪽).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황의 신속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전의를 고양시키고 國民皆兵制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기능을 여실히 보여준 것 또한 청일전쟁이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 받고 있던 신문매체뿐만이 아니라, 자료5)에서 보듯이 報道画로서의 니시키에, 일명 '메이지니시키에(明治錦絵)' 또한 신문 보급과 더불어 대중의 인기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전장의 모습을 취사선택하여 서양에서 들여 온 '동판 및 석판 절충에 의한 정교한 기법'(井上祐子 2012: 20-21)으로 제작된 메이지니시키에는 전쟁의 대의명분과 국민들의 전의고양에 커다란 동기를 부여한 훌륭한 시각매체로 인기가 있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남의 집 일을 돕는 머슴살이 생활을 면치 못하다가 영광스러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하라다의 모델은 또 다른 영웅탄생의 전조였던 셈이다.

즉, 전쟁영웅을 탄생시켜 미화하고 대대적으로 현창함으로써 또 다른 영웅의 탄생을 부추기는 멸사봉공, 충군애국 이데올로기의 표상이 다양한 근대적 미디어

매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라다 스스로도 유랑극단의 배우로 전국을 돌며 현무문 전투장면에서 열연을 펼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정쟁영웅으로 추켜세워진 '자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하라다 자신에 의한 표상 역시 대중의 시선에 동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엽서2]



[엽서3]

[엽서2]와 [엽서3]은 [엽서1]의 또 다른 버전이지만 '原田重吉の奮戦せるところ' 日清戦役時原田一等卒の玄武門破り'라는 설명문과 함께 1930,40년대까지 널리 유통되었던 평양명승 사진그림엽서이다. 청일전쟁 승리와 더불어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한반도의 명승지 사진그림엽서에 환기된 하라다영웅담은 시간을 초월하여 유통되었다. 전 국민의 열화 같은 갈채를 받는 국민영웅에서 생활고 끝에 유랑예인으로 몰락한 전쟁영웅으로, 그리고 다시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몰락한 영웅 이미지는 은폐되고, 이전의 미화되고 찬미되었던 '영웅담'이 다시금 재소환 되어 유통기한이 조정되었다. 이로써 제도화된 영웅담론은 주인공을 달리하며 여전히 국가주의 애국담론에 소환되고 환기되어 전쟁이미지를 국민들이 공유하는 군국주의의 기제로 작용되었음을 상기시킨다.

■ 참고문헌

<자료>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인용 자료의 성격상 연도순으로 기재 함)
 斎藤源太郎(1894.10.15.), 『征清戦功美談第一編』開進社
 (1894.10.28.), 『征清戦功美談第二編』開進社
 堀本柵(1894.11.11.), 『支那征討英傑伝』東崖堂・東雲堂
 _____(1894.11.16.), 『帝国軍人名誉列伝』東雲堂
 富岳館編輯部編(1894.11.28.), 『征清壯絶日本軍人義勇伝』富岳館
 服部誠一(1894.12.28.), 『征清独演説』小林喜右衛門(外)
 凱旋城土編(1894.12.30.), 『抜群勇士原田重吉』求光閣
 山田源一郎編(1894.12.31.), 『教科摘要 討清軍隊大捷軍歌 第2編』増子屋(外)
 清水善博編(1895.2.12.), 『新体軍人用文』浜本明昇堂
 天竜漁史編(1895.2.18.), 『征清百傑伝 上巻』奎光堂
 天野馨(1895.3.1.), 『討清軍人十勇士』国華堂
 伊能嘉矩編(1895.3.11.), 『戦時教育修身訓 第1編』普及会
 服部喜太郎編(1895.4.4.), 『征清三勇士伝』求光閣
 関泉野史編(1895.4.22.), 『征清勇士原田重吉』矢嶋誠進堂
 岡野英太郎編(1895.5.5.), 『出師美談』松栄堂
 楓仙子(1895.9.7.), 『帝国軍人亀鑑』東雲堂
 行川富之助編(1895.9.26.), 『義勇奉公 少年亀鑑』弘文社
 近藤南州(1896.2.17.), 『中等作文教科書補遺』大阪松雲堂
 上野羊我編(1896.5.4.), 『教育勅語 征清美談』教育書房
 服部誠一(1897.9.), 『通俗征清戦記』東京図書出版合資会社
 萩原朔太郎(1935.2.), 『日清戦争異聞—原田重吉の夢—』萩原朔太郎全集 第五巻』筑摩書房
 北垣恭次郎(1943.11.15.), 『大國史美談 卷7』実業之日本社
 豊田市教育委員会 豊田市史編さん専門委員会(1987), 『豊田市史 人物編』
 嵐山町web博物誌「手島精一と幻灯」,<http://www.ranhaku.com/web06/06lifestyle/01sei06.html>
 (검색일 2019.5.20)

<논문>

신동규(2018)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일본문화연구』67, 동아시아일본학회, pp.5-34
 조정민(2018)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지배와 향유의 바다-」,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pp.35-58
 최인택(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기억」, 『동북아문화연구』5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31-149
 최인택(2018)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일본문화연구』

- 67, 동아시아일본학회, pp.59-88
- 한현석(2018)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일본문화연구』67, 동아시아일본학회, pp.89-114
- 황익구(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63, 동아시아일본학회, pp.49-74
- 황진(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일본문화연구』63, 동아시아일본학회, pp.77-100
- 朴美貞・長谷川怜編(2016) 『日本帝国の表象—生成・記憶・継承』 えにし書房.
- 増子保志(2015) 「創られた戦争美談—肉弾三勇士と戦争美談—」, 『日本国際情報学会誌』12巻1号、pp.27-35
- 井上祐子(2012) 『清・日露戦争と写真報道—戦場を駆ける写真師たち—』、吉川弘文館.
- 内海紀子(2000) 「萩原朔太郎『日清戦争異聞(原田重吉の夢)』研究—メディア・イメージの〈戦争〉—」, 『人間文化研究年報』24,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編、pp.2-66

DOI: 10.18075/jcs..71.201907.421

■ Abstract

The tale of an war hero related to the postcard of 'Hyunmumun' with a view of Pyongyang's scenic spot

Choi, In-Tag

Harada Jukichi was a unique person whose name was printed as a hero of the Sino-Japanese War in the postcard with a view of Pyongyang's scenic spot, and was evoked by unspecified individuals passing time and space. He was born as a son of a poor farmer and worked as farmhand before he became popular as an war hero who was treated as a national hero by rendering distinguished services as a soldier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media of the time spread the ideology of self-annihilation for the sake of his country with loyalty and patriotism that encouraged the birth of another hero by glorifying and advertising his achievements extensively. And he was forgotten by the public for a while, but was recalled in the media again as the main character of the impressive story of war at the time of national emergency such as the Manchurian incident in the 1930s.

Key words: Sino-Japanese War, Battle of the Hyunmumun, war hero. Harada Jukichi, loyalty and patriotism

■ 日本語抄録

平壤名勝写真絵葉書'玄武門'にかかわる戦争英雄談

一日清戦争平壤戦闘英雄原田重吉の表象と記憶一

崔仁宅

原田重吉は平壤名勝写真絵葉書において日清戦争英雄としてその個人名が記され時空間を超え、不特定多数の視線に喚起された得意な存在であった。貧しい農家に生まれこれといった教育も受けられなかった彼は日清戦争に際し、陸軍一等卒として戦闘に参加し、武功をおさめ一躍国民的英雄としてもはやされた人物である。当時のメディアは彼の功績を美化し、大々的に顕彰することによって滅私奉公、忠君愛国イデオロギーを拡散させた。しかし原田重吉の栄光は長続きできず、生活苦の末、流浪芸人に成り下がりメディアから'墮落した英雄'として表象される。暫くメディアから注目されなかった彼は1930年代満州事変や上海事変など国の非常事態に際しメディアに再召喚され戦争イメージを国民が共有する軍国主義の道具として利用した。

キーワード：日清戦争、玄武門戦闘、戦争英雄、原田重吉、忠君愛国

<필자인적사항>

성명 : 최인택

소속 :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 교수

연락처(이메일) : itchoi@dau.ac.kr

투고마감일 : 2019.04.30

심사개시일 : 2019.05.15

게재확정일 : 2019.06.15.